

# 약업계 히로애락... 현장에서 펼쳐 달린 39년



약사공론 1000호

“소성(小成)에 자족하지 말고 정진해 달라.” 1968년 태동해 불혹을 바라보기까지 약사공론을 향한 독자들의 기대가 한결같다.

‘약업계의 교량’, ‘상생 발전의 길잡이’, ‘약학발전의 촉매’ (지령 1000호, 2000호, 3000호 독자평) 역할을 담당하며 독자들의 발과 귀와 눈이 되어 온 약사공론 39년을 남겨진 기록의 역사로 되짚어 본다.

대한약사회 기관지이자 회원의 대변지로 첫 역사를 쓰기 시작한 1968년에는 ‘약업계 초유의 국제회의’로 평가받은 아시아약학연맹총회(FAPA)가 대한약사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려 한국 약사와 약업계의 위상을 각인시켰다.

이 시기에 약사공론은 회원과 대내외 주요 인사들의 격려 속에서 한국의 약사상, 산업의 발전상, 약사의 다채로운 진로 등을 펼친 기획물로 희망과 비전의 포문을 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을 가

로지르는 10년간은 전국민의료보험, 의약분업을 대비하는 경과기로서 진통이 었보였다. 이 시기동안 10대의 미속함을 벗고 20대 청년기로 중심을 잡아 가던 약사공론은 침체의 늪보다는 틈새의 희망을 찾아 펼친다.

1978년 지령 1000호 특집(4월 6일자, 52면 발행)에는 ‘공론 1000호, 현장을 달린다’는 표제로 상황별 약국 실정을 현장감 있게 다뤘다. 지나친 세제 압박으로 곤경에 처한 실정이나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시가 제도를 정착시킨 마산 약국이 이야기, 종로5가, 아파트촌, 피서지 등 약국 등 상황별 약국 경영상황을 밀착 취

경제살리기에 일조했던 약사의 활동들을 ‘역동 지방약업’으로 엮어 전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군사보호 해지(경기북부), 신도시 개발(인천), 관광부흥(강원), 고속철도와 서해안 개발(충청권) 등 지역별 국토개발계획에 맞춘 약국-유통 전망도 생동감 있게 전했다.

지면을 통해 이어져 있는 과거와 현재도 주목할만하다.

1970년대부터 이미 지면을 장식하기 시작한 ‘구멍가게 단속’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을, ‘습관성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는 ‘약 바로 알기 캠페인’을, ‘약가규제’는 약제비 적정화

침체서 희망을... 부정서 긍정 퍼 올려  
마감날 통금 넘기며 정론 향한 고민도

재했다.

1988년 지령 2000호(1월 11일자, 28면 발행) 때는 별도 특집을 다루지 않았지만, 의약분업에 대비해 전문약-일반약 체제로 변화를 시도한 의약품 분류 문제와 사회약학 등 당시 소외됐던 분야를 약대 본과로 편입시키는 움직임 등 주요 현안을 보도했다.

1997년 지령 3000호(12월 11일자, 60면 발행)에서는 IMF 여파를 맞아 10대 기업안에 꼽히던 유수 제약업체가 파산하고 대형 난대약국의 그늘이 남아 있는 가운데서도 미니 중소형 약국 특화경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약국들의 활기와 ‘하루 전원 저축운동’으로

진통을 연상케 한다. 또 ‘약대 학제 연장 시비’는 약대 6년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과 대비돼 격세지감을 실감케 한다.

기자들이 취재와 기사작성부터 제작까지 전담했던 전문지 제작환경에서 마감날이면 의례 통금을 넘겨가며 약사공론의 미래를 고민했던 기자들의 방담(지령 1000호 특집)도 눈에 띈다.

방담에 섞인 어느 기자의 말처럼 ‘쉽지 않았던 창간과 성장의 진통’ 가운데서도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녔’던 약사공론의 초심, 거기에 지령 5000호, 6000호, 7000호로 향하는 새 길이 있다.

허현아기자 hyuna@kpanews.co.kr



약사공론 2000호



약사공론 3000호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장 전승호

부회장 이왕섭  
부회장 이상봉  
부회장 조성기  
부회장 이진훈

부회장 김미애  
부회장 김동민  
부회장 이재호  
총무 최백규

외 동문일동